

내가 바로 미래의 영화감독!

‘제19회 대한민국청소년영화제’ 초등부 대상
신능초등학교 최지나, 임소윤 학생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신능초등학교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예술드림거점학교 사업의 일환으로 학생들이 직접 영화를 제작하고, 영화 강사 초청과 영화제작 캠프를 진행하는 등의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학생들이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기획부터 출연, 촬영까지 직접 참여한 영화로 각종 대회에서 상을 휩쓴 최지나, 임소윤 학생을 만나봤다.

글 서충식 사진 심민규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먼지나게 비오는 날’의 감독을 맡은 신능초등학교 5학년 최지나입니다. 이 영화는 축구를 좋아해서 체육대회를 기다리는 학생이 미세먼지로 인해 체육대회가 무산될 슬픈 상황을 담담하게 극복해 나가는 이야기를 담은 영화예요. 미세먼지가 많아서 외부 활동을 못했던 저희의 실제 기억을 영화로 만든 것이 특징이죠. 그 덕분일까요? 먼지나게 비오는 날은 모두가 관심 있어 하는 미세먼지라는 주제로 아이들의 감정을 순수하고, 담백하게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2019년 ‘제19회 대한민국청소년영화제’에서 초등부 대상을 받는 놀라운 일을 이뤄냈어요. 기획과 연출이 모두 좋았다고 생각해요. 사실 먼지나게 비오는 날은 작년에만 4개의 상을 받았어요.



최지나(감독)



‘제19회 대한민국청소년영화제’ 초등부 대상부터 ‘인성영화제’ 장려상, ‘김포청소년영화제’ 이의제기상, ‘고양신능학생주도 영화제’ 대상까지요. 지금까지 받은 상금이 총 100만 원인데 모두가 함께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해요. 23명의 스텝이 참여해 한 학기동안 먼지나게 비오는 날을 촬영했는데 많은 대회에서 상을 받아서 고생한 보람을 느껴요. 모두에게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저의 5학년 담임선생님이신 고혁민 선생님의 추천으로 2019년에 처음으로 영화 제작을 시작했는데 재미있는 추억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영화 제작을 전체적으로 도와주시고, 촬영 장비도 제공해주신 것도요. 올해도 많은 영화를 만들어보고 싶어요.



먼지나게 비오는날 장면

영화 메이킹 모습

안녕하세요, 저는 ‘먼지나게 비오는 날’의 주연을 맡은 신능초등학교 5학년 임소윤입니다. 저를 포함해 주연 후보가 4명이었는데 제가 뽑히게 돼서 기뻐요. 연기는 힘들었지만, 재미있는 추억을 만들게 돼서 좋았어요. 감독, 배우, 스텝 등 23명이 참여한 13분 길이의 이 영화는 정말 많은 사람의 노력이 담겨 있어요. 특히 마지막에 비오는 날 축구하는 장면은 촬영이 너무 힘들었어요. 여름이었는데 무더운 날씨에 스텝들이 물뿌리개 호스로 물을 뿌리며 비 내리는 장면을 연출했고, 저와 선생님이 땀을 뻘뻘 흘려가며 찍었어요. 그래서 NG도 엄청 많이 났어요. (웃음) 그래도 영화가 완성되고 각종 영화제에 제 얼굴이 나오니까 연예인이 된 것 같아서 신기했어요! 신능초등학교는 영화에 관심이 많아요. 영화동아리인



임소윤(배우)



‘먼지나게 비오는 날’을 감상해보세요!

‘유형프렌즈’에서 작년에만 총 3편의 영화를 제작했어요. 1학기 때는 모두가 힘을 합쳐 ‘먼지나게 비오는 날’을 찍었고, 2학기 때는 두 팀으로 나눠 로맨스 영화 ‘러브댄스’와 스릴러 영화 ‘학교탈출’을 찍었고요. 영화 제작 말고도 저희가 제작한 영화 속 주인공 등을 기념품으로 제작해 영화제에 나갔을 때 판매하기도 했어요. 저는 주연으로 활동한 경험을 살려 2학기 때 ‘학교탈출’이라는 영화의 조감독으로 참여했어요.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복수, 화해를 다룬 영화예요. 다음에는 감독을 맡아서 액션을 주제로 한 영화를 찍어보고 싶어요. 이제 6학년이 되는데 지나랑 떨어지게 돼서 아쉽지만, 같이 더 많은 영화를 찍을 거예요. 신능초 영화동아리 ‘유형프렌즈’ 2020년에도 파이팅! 🍀